

## 미국 2월 고용: 기뻐 언덕이 사라졌을 때

- 미국 2월 고용은 예상 밖 감소(-9.2만): 계절적 레저수요 부진 + 헬스케어 파업
- 1월 중 민간고용을 지탱했던 건설업이 다시 감소하며 고용 부진의 민낯이 드러남
-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실업률이 상승하는 안 좋은 조합 출현
- 향후 연준이 인하 재개해야 할 명분이라면 단연 노동시장 챙기기가 될 것

### 경제분석

Economist 이승훈  
seunghoon.lee@meritz.co.kr

RA 박민서  
mspark@meritz.co.kr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집계하는 **2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대비 9.2만 명 감소하며, 컨센서스(5.5만)과 당사 예상(6.0만)을 크게 하회**했다. 이는 민간고용을 지탱해 오던 양대 축인 헬스케어/사회서비스(-1.9만)와 레저/여가(-2.7만) 고용의 동반 감소에 기인한다. 레저/여가는 계절적인 부진인 썸 치더라도, 헬스케어 고용 감소는 이례적이다. 이는 미국 대형 병원체인/보험사인 카이저(Kaiser) 소속 간호사, 임상 실험 인력, 원무행정 인력 등 의료진 파업(3.1만 명; 1.26~2.23)에 기인한 것이다.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고용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작년 5월 이후 헬스케어와 레저/여가를 제외한 민간고용은 11월과 1월을 제외하면 줄곧 감소해 왔다. 올해 1월, 이 숫자가 반등한 것은 건설업 고용이 4.4만 명 늘었기 때문인데, 이는 10년 동안의 흐름처럼 예년대비 온난한 기온에 기반하여 겨울철 건설활동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2월 건설업 고용이 다시 감소하며 결국 **헬스케어, 레저/여가에만 의존하는 미국 민간고용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

2월 취업자수가 감소했지만, 임금은 1월과 같은 폭으로 올랐다(0.4% MoM). 전년 대비 상승률은 3.71%에서 3.84%로 올랐는데, 이는 관리직이나 전문직 임금의 영향으로 보인다. 비관리직/생산직 임금상승률이 경기와 노동수급에 민감하며, 구인/실업자 배율의 하향 안정화에 시차를 두고 계속 내려오는 양상이다.

고용 감소만큼 걱정스러운 것은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동반 하락과 실업률이 상승(4.32%→4.44%)이 함께 나타난 점**이다. 특히 올 들어 1) 55세 이상과 2) 미국 출생자 경황률 하락이 두드러졌다. 실업률 상승(+1.2%p)에는 실직(+0.7%p)과 경제활동인구 재편입(+0.9%p)이 기여했지만 재편입이 되어도 취직이 안되면 계속 실업이다. 실업기간 중위수, 평균값이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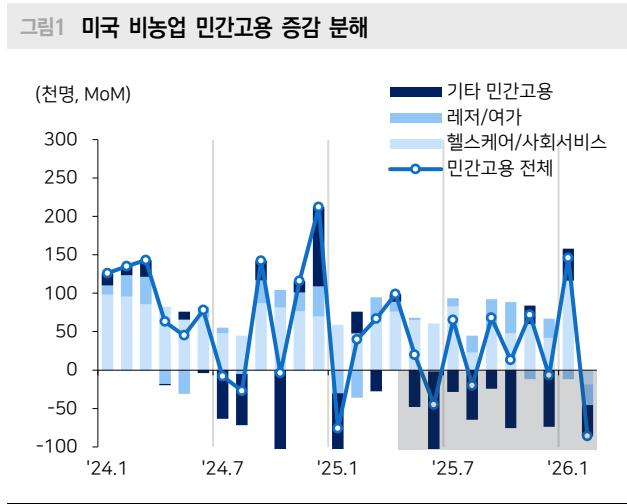
1월 FOMC 당시만 하더라도 연준은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였다. 2월 고용은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근래에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 본다. 관세齏 물가압력이 진정된 후 연준이 금리인하를 재개해야 한다면, 그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단연 노동시장 챙기기가 될 것이다.

(1) 비농업 취업자수: 기말 언덕(헬스케어, 레저/여가)이 사라졌을 때

**표1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 (2025년 3월 ~ 2025년 2월)**

(천명, MoM)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12m avg.
<b>비농업 취업자수</b>	<b>67</b>	<b>108</b>	<b>13</b>	<b>-20</b>	<b>64</b>	<b>-70</b>	<b>76</b>	<b>-140</b>	<b>41</b>	<b>-17</b>	<b>126</b>	<b>-92</b>	<b>13</b>
민간	67	99	20	-45	65	-20	68	13	72	-7	146	-86	33
정부	0	9	-7	25	-1	-50	8	-153	-31	-10	-20	-6	-20
제조업	-5	-4	-11	-15	-11	-10	-3	-9	-10	-13	5	-12	-8
건설업	6	-2	-2	-2	-6	-22	16	-12	36	-7	48	-11	4
도소매	2	9	-21	-25	-1	1	22	-13	-7	-29	13	8	-3
운수창고, 유틸리티	-16	-18	3	1	4	-3	-39	1	-57	-4	-12	-10	-13
정보기술	-9	-2	-1	-1	-2	-1	-1	-6	-5	-6	-19	-11	-5
금융	2	4	6	-7	0	-19	4	-5	1	1	-30	10	-3
사업서비스	-16	13	-20	-31	-16	-28	-16	-24	56	-19	18	-5	-7
일용 서비스	-5	-1	-14	-9	-10	-11	-12	-20	14	-14	3	-7	-7
민간교육	0	8	-5	-11	4	0	-2	-3	-4	-4	13	-16	-2
헬스케어, 사회서비스	68	76	65	61	83	23	55	48	60	42	116	-19	56
레저/여가	27	13	3	-2	11	22	37	41	-12	25	-12	-27	11
숙박	6	2	-6	-12	-1	-5	-2	3	-1	15	-11	-5	-1
외식	10	14	-4	1	5	21	39	43	22	-5	13	-30	11
기타서비스	10	0	7	-10	5	19	-3	-6	16	8	8	8	5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2025년 12월, 2026년 1월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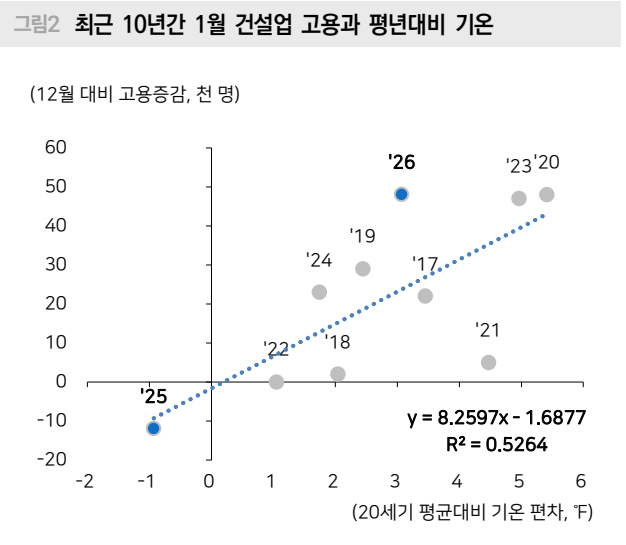
(천명, MoM)	New		Old		Diff (New-Old)		계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b>비농업 취업자수</b>	-17	126	48	130	-65	-4	-69
민간	-7	146	64	172	-71	-26	-97
정부	-10	-20	-16	-42	6	22	28
정부교육	-9	6	-12	-7	3	14	16
제조업	-13	5	-8	5	-5	0	-5
건설업	-7	48	-4	33	-3	15	12
도소매	-29	13	-40	1	11	12	24
운수창고,유틸리티	-4	-12	0	-10	-5	-2	-6
정보기술	-6	-19	-2	-12	-4	-7	-11
금융	1	-30	-1	-22	2	-8	-6
사업서비스	-19	18	15	34	-34	-16	-50
일용 서비스	-14	3	6	9	-20	-7	-26
민간교육	-4	13	4	13	-8	-1	-9
헬스케어	42	116	49	124	-7	-7	-14
레저/여가	25	-12	45	1	-20	-13	-33
기타서비스	8	8	6	7	2	1	3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헬스케어 취업자 및 증감 분해**

	취업자수 (천명)			증감 (천명)	
	12월 (A)	1월 (B)	2월 (C)	B-A	C-B
헬스케어/사회서비스	23,588	23,704	23,685	116.4	-18.6
1. 헬스케어	18,295	18,372	18,344	76.7	-28.0
a. 외래 의료	9,121	9,167	9,133	46.1	-34.0
<b>내과</b>	<b>3,039</b>	<b>3,051</b>	<b>3,014</b>	<b>12.2</b>	<b>-37.4</b>
치과	1,056	1,057	1,058	1.9	0.1
기타 진료과목*	1,326	1,336	1,339	10.2	3.3
외래진료 센터	1,188	1,192	1,194	3.5	1.7
의료진단 실험실	312	312	307	-0.3	-4.7
홈 헬스케어	1,830	1,848	1,848	17.2	0.7
b. 종합병원	5,719	5,738	5,749	18.7	11.6
2. 사회서비스	5,292	5,332	5,341	39.7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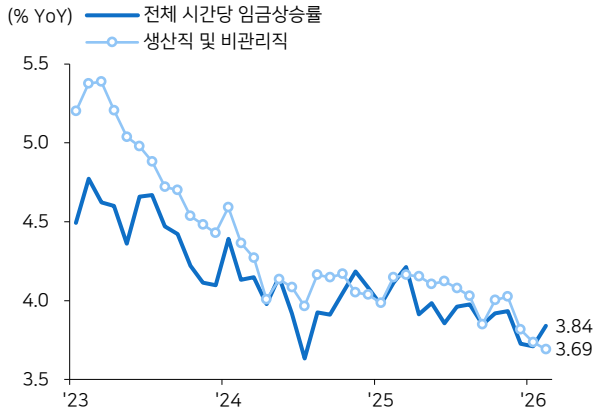
주: \* Therapist, Optometrist, Chiropractor, Mental Health 등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NOAA(미국 해양대기청),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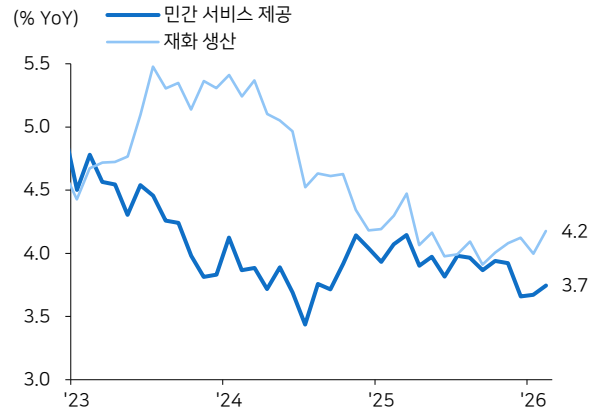
## (2) 노동수급과 임금: 제조업 Unskilled labor 감소 영향 반영 가능성

그림3 미국 임금상승률: 전체 vs 생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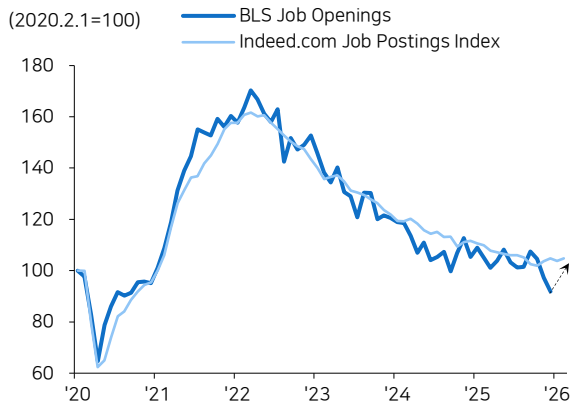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미국 임금상승률: 민간 서비스 vs 재화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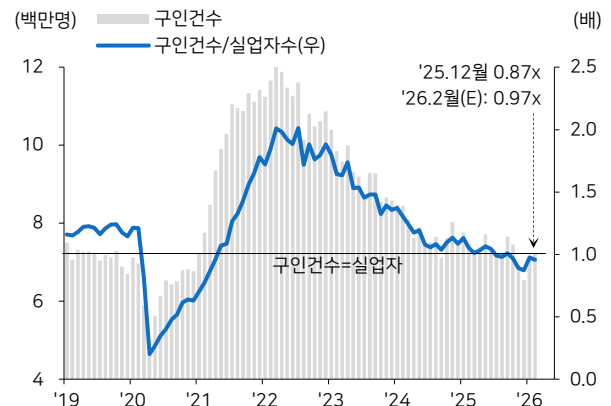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구인건수: 미국 노동통계국(BLS) vs Indee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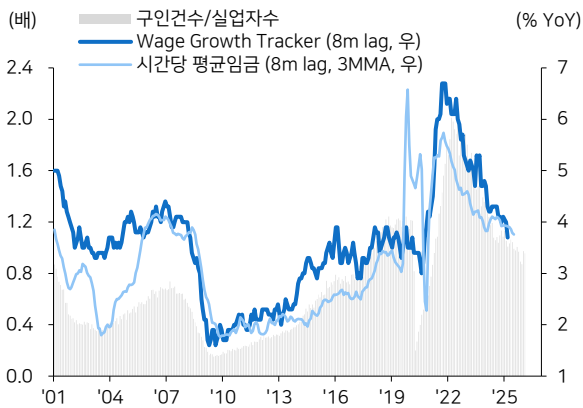
자료: Indeed.com Hiring Lab,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구인건수 및 구인건수/실업자 비율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미국 구인/실업자 비율과 임금 상승률



자료: US BLS, Atlanta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Atlanta Fed Wage growth tracker와 서비스 물가 상승률



자료: US BLS, Atlanta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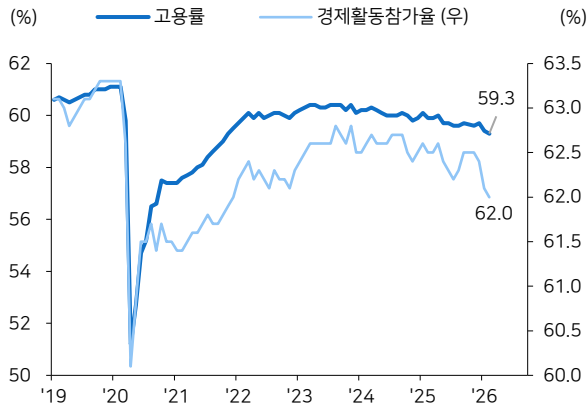
## (3) 실업률과 가계조사: 경찰률, 고용률 하락 vs 실업률 상승

표4 미국 실업상태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기여도

(천명)	'25.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26.1월	2월
Job losers: 일시해고	860	940	886	833	1,002	929	839	925
Job losers: 영구실직	1,887	1,887	1,925	2,023	1,936	1,969	2,008	2,037
Job losers: 계약만료	546	577	627	669	623	575	649	658
Job losers: 소계	3,293	3,404	3,438	3,525	3,561	3,473	3,496	3,620
자발적 사직	825	784	784	861	861	832	1,038	867
경제활동인구 재편입	2,145	2,180	2,287	2,325	2,600	2,337	2,168	2,320
경제활동인구 신규편입	710	985	786	813	774	840	796	805
실업자 계	7,015	7,236	7,384	7,603	7,781	7,503	7,368	7,571
경제활동인구	170,380	170,412	170,750	171,261	171,541	171,495	170,465	170,483
(기여도, %p)								
Job losers: 일시해고	0.505	0.552	0.519	0.486	0.584	0.542	0.492	0.543
Job losers: 영구실직	1.108	1.107	1.127	1.181	1.129	1.148	1.178	1.195
Job losers: 계약만료	0.320	0.339	0.367	0.391	0.363	0.335	0.381	0.386
Job losers: 소계	1.933	1.998	2.013	2.058	2.076	2.025	2.051	2.123
자발적 사직	0.484	0.460	0.459	0.503	0.502	0.485	0.609	0.509
경제활동인구 재편입	1.259	1.279	1.339	1.358	1.516	1.363	1.272	1.361
경제활동인구 신규편입	0.417	0.578	0.460	0.475	0.451	0.490	0.467	0.472
실업자 계	4.117	4.246	4.324	4.439	4.536	4.375	4.322	4.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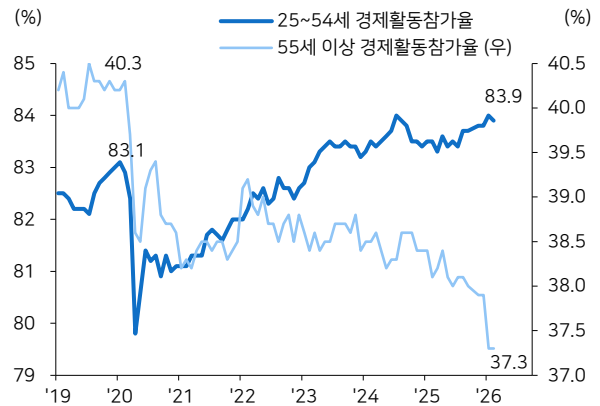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미국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미국 경제활동참가율: Native born vs Foreign b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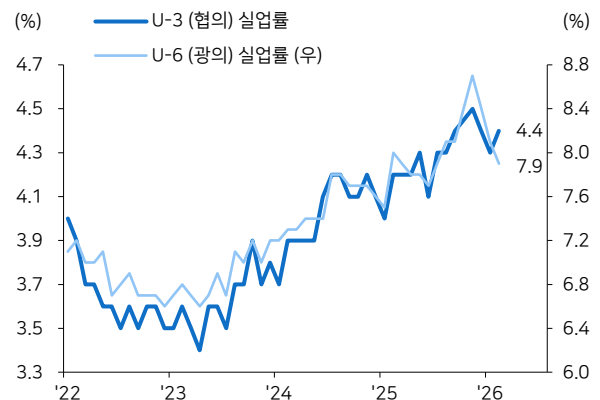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미국 경제활동참가율: Native born vs Foreign b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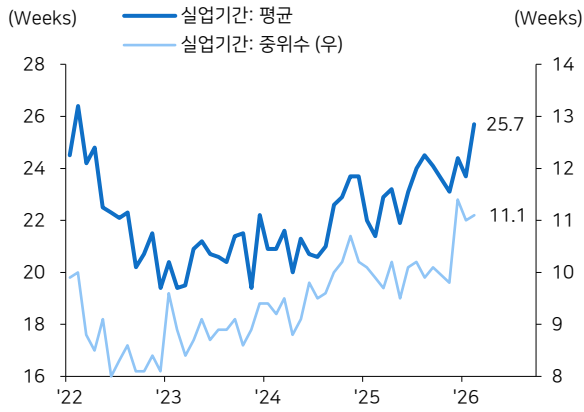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미국 실업률: U-3 vs U-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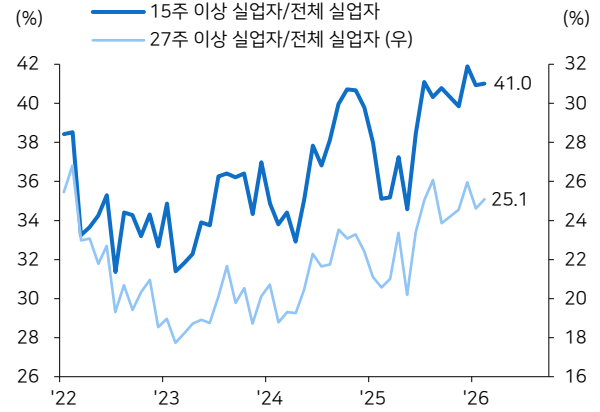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미국 평균 및 중위수 실업기간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전체 실업자 내 15주 이상, 27주 이상 실업인 비율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